

희망세상 (2006년 5월호 / 44호)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일 : 2006년 5월 1일
- 발 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1980년대 ‘반미운동’ 제기의 결정적 논리를 제공한 ‘광주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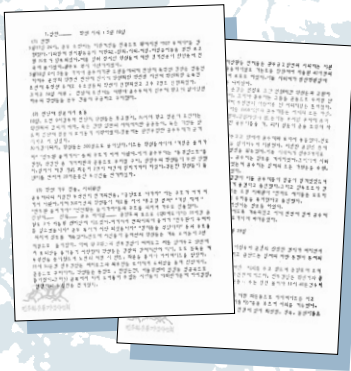
글 · 소준섭 namoo@nanet.go.kr

바람 새는 자취방에서 숨 죽여 읽었던 ‘광주’의 기록

1981년 1월, 광주의 겨울은 유독 추웠다. 1980년 ‘서울의 봄’으로 군부정권에 의해 전국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나는 서울에서 수배망을 피해 살 곳이 더 이상 없어서 광주로 내려갔다.

당시 광주 사람들은 아직도 1980년 봄, 그날 광주의 상흔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 나는 광주의 진상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광주의 기록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실에 가깝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광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발행한 ‘투사회보’나 각종 선언문 그리고 재판기록 등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하였고, 이와 동시에 항쟁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의 증언을 최대한 다양하게 들었다. 과장된 표현이나 증명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은 기록의 가치와 신뢰도가 떨어질뿐 아니라 결국 군부정권에게 이용만 될 뿐이므로 가능한 한 정확성을 기하러 노력하였다. 물론 나 자신이 수배자였던 관계로 모든 일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기록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참혹함과 가신 남들의 소리 없는 통곡 소리가 가슴 가득히





밀려왔고, 증언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전율로 오싹해지곤 했다.

김준태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로 시작하는 이 백서는

1. 발단 - 학생 시위 : 5월 18일
2. 시민합세, 민중 봉기로 발전 : 5월 19일
3. 무장봉기로 전환 : 5월 21일
4. 시외로 확산, 전남 민중봉기로 : 5월 21일
5. 시내 장악 및 자체 조직 과정 : 5월 22일~26일
6. 계엄군 무력진입 : 5월 27일

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찢어진 깃폭'을 발췌하여 200자 원고지 약 500매 분량으로 기록했다.

사실 필자는 당시 알지 못했지만 복막염과 장결핵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인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광주에서 도와주던 팀이 체포되고 본인만 체포를 모면하게 되면서 원고와 관계 자료들을 서



올로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2년 초에 등사기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등사해 약 100부를 인쇄했다. 그리고 광주에서 제작된 것처럼 하기 위해 일부러 광주에 내려가 현지 우체국에서 원주의 이창복 선생 등 약 20여 명에게 등기 소포로 배달하고 곧이어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서울의 각 민주단체, 서울대 인문대 학회룸 등 들키지 않으면서도 용이하게 배포할 수 있는 장소에 한두 부씩 놓

아두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수기(手記)로 쓴 ‘광주백서’의 원본은 유인물로 제작, 배포한 후에도 가지고 다니다가 수배자의 신분으로서 너무 위험하여 결국 태워 없애고 말았다).

‘광주백서’의 역사적 의미

이른바 ‘유언비어’ 차원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광주의 전 과정을 처음으로 정리한 이 지하 팜플렛은 당시 대단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 역사적 의미는 현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80년 5월 이후 여전히 폐쇄된 공간으로 남아 있던 ‘광주’의 문제를 전국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광주’가 전국의 민중들에게 공유되지 못한 채 지역적으로 ‘국한된’ 공간으로 남아있던 상황에서 ‘광주백서’는 광주의 진상을 최초로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전국적으로 알림으로써 ‘광주 문제’를 광주라는 지역적 한계를 돌파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광주학살의 문제를 한국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반군부 투쟁 전선을 가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광주의 진상을 기록한 이 비합법 팜플렛을 ‘바람 새는 자취방에서 숨 죽여 읽으면서’ 모두 광주의 그날에 비탄의 눈물을 흘렸고 군부정권의 잔학성에 치를 떨었으며 그래서 떨치고 나아가

군부 살인정권에 대한 투쟁의 대오에 나서도록 결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단의 총화가 1980년대 학생운동, 아니 전체 민족민주운동을 불타오르게 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셋째, ‘광주백서’는 광주 진압에서 미국의 역할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함으로써 이후 미국 문제를 민족민주운동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는 데 하나의 분명하고도 구체적이며 결정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미국, 광주 시위사태 진압 동의〉라는 소제목으로 ‘광주백서’에 실린 미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날 미국무성은 성명을 내고 ‘모든 관계자들이 최대한도로 자제할 것을,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불안이 계속되고 폭력사태가 확대되면 외부세력의 위험한 오판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방성은 ‘광주 데모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4개 대대의 한국군을 미국 통제 하에 풀어줬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23일, 호딩 카터 미국무성 대변인이 카터 행정부는 ‘남한에서 안보와 질서의 회복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압력을 늦추기로 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리하여 미국은 이제 공공연히 전두환 정권을 지원하고 나섰으며 이로써 광주 대학살극의 공범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당시 반공이데올로기의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미국 문제를 제기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 문제에 대한 제기 자체가 곧바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며, 더구나 미국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호의적 태도라는 높은 벽을 쉽게 넘어설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미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는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이 직면했던 심각한 고민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백서’를 통해 광주 학살에서 미국의 묵인 내지 방조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비판에 대한 대중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반미운동의 무풍지대로 불리던 이 땅에서 강력한 반미운동을 발화시키는 기폭제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제 미문화원 농성 등 이후의 1980년대 반미자주화운동은 ‘광주 백서’에서 제기된 내용을 그 논리적 근거로 하고 있었다. ~~▲~~

글 소준섭

1980년 5월 ‘서울의 봄’으로 전국에 지명수배 됨, 1981년 광주에 피신 중에 ‘광주백서’ 기록. 1990년 전민련 부대변인 역임. 현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 재직 중. 국제정치학 박사.